

지금 로마서 5장을 다같이 펴봅시다

로마서 3장 이후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해 왔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죽을 곳에서 자신이 대신 죽었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 대신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수욕을 감당하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무죄로 선언하시고, 동시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4장에서는 바울이 구약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전체 아래 이제 5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5:1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 바울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결과와 경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가진 경험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그 첫 번째 복과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5:1)

만일 나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라면, 이것은 어떤 순간에서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써 나의 삶과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서로 맞지 않게 살고 있는 때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말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행함이 아주 뛰어나고, 매우 좋으나, 다른 때는 실패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나의 선한 행실에 달려 있다면, 내가 선한 행함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내가 실패하면, 그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함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한, 그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다시 오심을 내가 또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항상 화평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공부에서 바울이 시편 32편을 인용했는데, 그 구절들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1)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죄와 허물을 탓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5:2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주신 영광스러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5:2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우주적인 선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리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 사건이 당신에게 맞는 진리라고 느끼느냐? 라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은 아주 개인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술에서 실존주의의 사상을 표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미술이란 그림을 보면, 마치 어떤 사람이 플라스틱 봉지에다 페인트를 가득 담아 캔버스에다 던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페인트가 양 사방으로 흩어져 칠을 한 듯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이의 해지는 장면’ 이라는 제목을 붙여놓습니다. 나는 현대 미술이라는 그림 몇 점을 보았는데, 내가 그 그림을 보았을 때는 무엇을 말하는지 도무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그림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 얼마나 좋은 그림인가!' 라고 감탄을 합니다.

이러한 그림은 당신이 직접 보고 해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천장에 스페인식 벽도로 장식한 그림을 바라보면, 어떤 것은 말같이 생겼는데, 이것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효과는 직접 보아야 경험할 수 있고, 당신이 직접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술의 이상적인 것과 목적이 실존주의의 철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내와 하와이에 갔다가 돌아 오면서, 비행기에서 별로 가지 없는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 영화의 끝장면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결론을 관람자의 상상에 맡기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 남자가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정신을 차려 바른 생활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갑자기 영화가 끝을 맺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결론 없이 끝을 낸 영화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한 것 같다고 생각되어, 조금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의 전형적인 표본인 것입니다. 그 영화의 목적 자체가 당신이 경험하고, 당신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의 결론은 천 개의 다른 결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이 각자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현대 음악에서도 어떤 것들은 내 평생 그 노래의 주제를 발견할 수 없을 곡들이 있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계속 두드리는 소리로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치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북을 계속 치고, 당신은 거기에서 노래 가락을 갔다가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표본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실존주의 결과로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사람을 고독하게 만들고,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작은 외딴 섬에 격리시키고, 당신은 당신의 다른 섬에 격리시켜,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지 모르게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존주의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격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그림을 당신도 같은 생각으로 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곡간이 있는 그림을 볼 때에, 발에는 소가 있고, 울타리가 있는 그림을 보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이해가 갑니다. 당신도 그 그림을 볼 때에, 우리가 서로 같은 그림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의 효과는 사람을 격리시켜, 격리된 섬에다가 사람을 갔다 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생활과 진리를 제각기 경험한 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우주적인 선함도 없고, 각 사람의 경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참된 진리와 선함을 발견하는데 절망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존주의의 철학은, 현실은 다만 절망을 초래하므로, 사람이 절망가운데 살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도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려는 방법으로 방탕생활, 마약, 술 중독, 과식, 도박 등을 오용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세상에서 도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의 철학은 사람들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종교적 경험으로 성숙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암시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는 현실에서 살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현실을 도피하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 경험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특수한 경우이며, 또한 격리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좋은 것을 느끼거나, 감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궁극적인 경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써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도 깨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패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평화를 위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현실을 알지 못한다는 실존주의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현실에서 살고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어리석은 자들의 낙원에서 살고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나의 현실은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삶의 현실을 대면하고 살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이면, 평화의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손자들이 시장에 빵을 사러 나갔다가 음화잡지와 같은 것에 노출될까? 그리고 사람들이 유괴할까? 라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다가 오고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세상을 통치하는 한, 그러한 세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왕국이 되고,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국이 설 때에 하나님께 큰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산 소망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께서 말씀 하시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5:3)

바울이 환란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여덟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라” 고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임이라” 고 하셨습니다. 또 “기뻐하고 즐거워 하라”고 하였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 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러한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이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내가 환란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 내가 괴로울 때에, 다만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함을 배웁니다. 이것을 터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뉴포트 비취에 있는 터를 구입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 위원회에서는 2주일 내에 그들의 결정을 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조급하지 않습니다.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얻게 되면 얻게 되고,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산타아나 교육지구로부터 그린빌 학교를 구입할 때에, 우리는 교육위원회에 가지도 않았고, 구두로 값을 말했더니, 어느 날 아침에 교육지역구의 비서가 전화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학교를 구입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라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환란은 인내를(5:3)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을 배울 때에,

인내는 연단을(5:4)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다고 봅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국면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에서 역사하시어, 또 다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께 대한 나의 소망은 더욱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반드시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5:4-5)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부어 주실 때에, 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5:6)

착하고 선하고 놀라운 관대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5:6)

오, 성령님께서 오늘 이러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자격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5:7-8).

하나님께서 언제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생활을 주님께 다 바쳐 드릴 때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초청되었을 때 손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였나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의 기도를 드렸을 때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네가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롬 5:8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자랑할 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경건치 못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그의 자녀인데 당신을 적게 사랑한 적이 있으셨나요?

많은 경우,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 하신다고 느낍니다, 혹은 우리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더 이상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상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이라고 상상하곤 합니다.

내가 나의 딸 쟈이 어릴 때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쟈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쟈이 어떤 일로 인하여 책망을 받은 후에, 말하기를,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도, 그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하기를, ‘응 그래,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쟈은, ‘아니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말하기를,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했더니, ‘아니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니? 그랬더니, ‘그분이 벽장에서 머리를 밖으로 내미시고, 혀를 내게 내밀었어요’ 라고 쟈이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여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사귀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관계는 결코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5:9)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못한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여기서 언급합니다.

대환란을 “하나님의 진노의 날” 이라고 한 것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여섯째 인봉을 떼실 때에, 계6:15-17에 보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진노의 날에 그의 피로 의롭게 된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더 구원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5:10)

그의 죽음이 나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나의 구원을 위한 중보는 말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장에서 “더욱”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더욱” 사랑합니다. 이것은 적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끄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논쟁의 개념을 보이는 형태입니다. 바울은 자주 그의 편지에서 그러한 형태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화목 되었거든, 그의 살으심이 더욱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5:11상)

지금 1절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라는 구절을 보면, 이곳은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마지막 경험, 혹은 결과를 말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5:11하)

이것이 의롭게 된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게 됩니다. 은혜에 들어가는 통로가 생겼습니다. 소망가운데 즐거워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헬라어에서 “구속”이란 말과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번역된 “구속”이란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구속”이란 말은 레위기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희생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죄를 위하여 구속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에서 히브리어는 kaphar로 되어있습니다. ‘카파’ 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 뜻이 ‘덮는다’ 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죄를 덮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짐승의 희생제물이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단지 죄를 덮을 뿐입니다. 황소나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희생제물은 어느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흠도 티도 없는 어린양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바라보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구속된 것을 베드로는 말하기를, 벰전 1:18-19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헬라어 “구속”이란 말의 뜻과 구약성경의 ‘덮는다’ 라는 뜻이 있는 “구속”이란 말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구속”이란 말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구속, Atonement = At-one-ment). 이러한 뜻에서,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가능케 하였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14:20)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때나마 죄로 인하여 격리되었던 것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사 59:1-2에서,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했으나, 이제 당신의 죄를 제거하여 버렸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고 요일 5:11과 12절에 기록된 대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며,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요일 1:3) 고 했습니다. 사귀어란 말이 코이노니아(koinonia)인데, 그 뜻은 ‘하나가 된다.’ ‘소통한다’ 와 같이 ‘함께 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아주 중요한 교리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로마서 후반부에 나오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교리의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도덕적 정부라고 불리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그의 죄가 나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 무죄하며, 완전히 중성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죄인이 된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며,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내가 책임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교리인데, 왜냐하면 바울이 제시한 논제를 보면, 전체적인 관념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을 부인한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었고, 착한 행실로써 의인이 된다는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는 결과적으로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는 교리로 귀착됩니다. 내가 몇 년을 의롭게 되어 보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결코 의로운 행실로써 도달할 수 없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신이 저주와 죄책감과 갈등에 빠질 뿐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12).

킹 제임스 영어 번역에서 “죄를 죄었다”는 동사가 과거분사 "have sinned" 로 되었으나, 헬라 원어에는 과거형으로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는 의미의 "all sinned"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일어난 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써 그가 우리를 대표하여 행동했습니다. 그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 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바는 영적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금지된 과일을 먹었을 때에 경험했던 그 영적 죽음인 것입니다. 아담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영적 생명의 유전인자를 후손에게 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후손에게 전해 줄 수 있는 유전인자는 의식을 가진 육신의 몸 뿐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가진 후손을 만들어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엡 2:1-3) 고 우리의 과거를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으며, 이따라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원래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에 단지 나는 원래가 죄인임을 증명할 따름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만일 어린아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합니다. ‘오, 천진 난만한 죄성이 없는 어린 아이들을 보라!’ 고 하지만, 그들이 무죄하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천진 난만하다고 하는 어린아이를 한번 보시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발로차고, 울며, 자기의 요구를 계속 주장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요구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에 만일 그 아이가 힘만 있다면, 베이비 크립을 모두 물어 뜯든지, 아니면 부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태프 탄트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왜 아이들에게 진실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까? 아이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옳은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아이를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에게 치욕을 돌리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5:13)).

죄가 있었지만,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 정죄하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한 가지 법만 있었는데, 그는 그 법을 어겼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것들이 있었으나, 부정적인 것은 단 하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법을 어겼습니다. 시속 100km의 속도 제한 법이 없었다면, 120km로 달라도 티켓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속도 제한의 법이 있는 곳에서 그 속도제한을 넘어 달릴 때에 티켓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곳에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어떠한 속력으로 운전을 해도 티켓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도 제한의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개 위험한 운전을 하면 경찰에게 체포되지만, 속도 때문에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경찰에 체포되는 것은 단지 위험한 운전 때문입니다. 죄가 이미 세상에 있으나, 율법이 주위지기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다.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겼으리라(5:14-15).

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가르침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의롭다고 하실 수 있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롭이니라 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5:16-17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며, 모든 사람이 범죄 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많은 사람이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망을 가져오고, 첫 아담이 사망을 가져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은 죄를 가져왔고, 예수님은 의를 가져오셨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행동한 것처럼,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대표하여 행동함으로 그를 믿는 자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옛 것이 아일랜드 사람의 성질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기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기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으로 새 창조물이 되었고, 새 기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5:18-20).

율법이 오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서 멀리 떠나있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말의 뜻이 ‘과녁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과녁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과녁에서 빗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과녁에서 얼마나 많이 빗나가 있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활을 잘 쏘아도 과녁이 세워질 때 까지는 당신의 활 솜씨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활을 사방으로 마구 쏘 때에, ‘오, 당신은 정말로 과녁을 빗나갔습니다’ 라고 내가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오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상적인 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율법을 잘 이해한다면, 독선적인 생각을 영원히 버리게 됩니다. 율법이 들어 옴으로 범함도 많아지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치게 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5:21).

로마서 5장을 다시 읽고, “더욱” 이라는 말에 밑줄을 치며, 그 말씀을 대조해 보시오. 그리고 5장에서 또 상고해 볼 다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등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5장에서 유의하여 살펴 볼 부분들입니다.